

협회 임직원 추계 체육대회 개최



우리협회는 10월 7일(금)~10월 8일(토) 양일간 강원도 청태산에서 2005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협회 임직원간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실시된 이번 추계 체육대회는 협회 정종혁 부회장을 비롯하여 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자연 휴양림을 통한 산림욕 즐기기, 팀별 족구대회 및 브레인스토밍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직원간 협력과 단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유관기관 동정

산업자원부

방폐장 주민투표 운동, 본격 개시

- 정부, 엄정한 투표관리 방침 재천명 -

오는 1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4개 신청 지역내에서 찬반단체의 투표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8일(토) 부재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개 지역 모두 예상보다 높은 부재자 신고율을 기록함으로써 방폐장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부재자 신고서 접수결과

유치신청지역	선거인수(명)	부재자신고인수(명)	부재자비율(%)
경주시	208,763	79,599	38.1
군산시	197,121	77,581	39.4
영덕군	37,577	10,319	27.5
포항시	374,998	82,637	22.0

이처럼 부재자 신고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주요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주민투표법 제정시 “참여선거, 자유선거” 실현을 위한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부재자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각 지자체들이 유치경쟁과정에서 방폐장 사업자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주민투표에의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금번 방폐장 사업유치에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관리야말로 금번 방

폐장 선정사업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에 주력하여 왔다.

금번 부지선정 절차는 그간 시민환경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사항들을 수용하여 처리방침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사용후연료를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민투표를 통한 민의수렴과정을 반영하였고, 추진과정에서도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부지선정 기준 수립, 부지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공정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와 4개 유치신청 지자체간에 “공정한 경쟁, 관련법령의 준수, 결과의 수용”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유치신청 지자체간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감정 조장과 상호 비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유치신청 지자체장 협의회를 소집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선의의 경쟁을 벌여나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 시민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도 금번 절차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이해하여 부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위사실의 유포, 투표권 없는 자의 투표운동 개입, 폭력시위 등 불법적인 투표운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방폐장의 필요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앞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과 관리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제6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참가

- 중국 신규 원전사업 진출 확대 및 수소에너지 개발 지속 협력 -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은 10월 11일(화)~12일(수) 양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 한국수석대표로 참가하여 원자력 발전 협력 증진, 원자력 연구·기술개발 교류 등 양국간 원자력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순천 중국 수석대표는 회의 개최사에서,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중 양국간의 돈독한 원자력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한국 수석대표인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에너지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활발한 국내 원자력 연구·산업현황을 소개하며 특히 양국의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원전 부품제작 및 설계업체 등과 관련 중국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 신규 원전사업에 국내 관련기관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03. 11) 합의 결과에 따라 작년 4월 중국 북경(칭화大)에 설립한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수소생산 기술분야의 협력을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핵연료·폐기물 관련 전문가 상호 교류, 방사선 비상진료 협력 체계 구축, 한·중 원자력 대한 인력 교류사업 추진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위) 개최 이후, 수석대표를 포함한 한국대표단 (19명)들은 절강성 소재 '진산(秦山) 원자력발전소' 와 '절강大 원자핵농업과학연구원' 을 방문하여 중국

의 원자력 관련기관을 둘러보고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강화협력을 논의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9 구조·구급대 교수요원 방사선안전관리교육 실시

-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동안 개최 -

10월 31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5일간 소방방재청 소속 전국 119구조·구급대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119 구조·구급대 교수요원 방사선안전관리 교육' 이 실시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 원자력안전학 교가 주관하는 이 교육은 119구조·구급대 요원들이 방사성동위원소 분실사고 및 방사능 테러 발생 시에 대비한 현장 조치능력을 배양하고 방사선방호 및 방사선환자의 응급처치·후송 등 응급체계의 전문기술 습득을 목표로 진행되며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 119 구조·구급대 소방요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방사선 기초, 방사선 사고사례 및 조치, 방사능 오염 및 제염, 방재대책, 긴급구조, 화재진압, RI특성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의실 교육 및 방사선 취급 및 측정 실습, 원자력발전소 견학등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데일리엔파워, 2005. 10. 18-

제2005-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실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이 주관하는 제2005-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이 10월 16일(일) 충남대학교 인문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올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에는 193명이, 방

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에는 34명이 각각 응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자격유무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2005년 11월 22일(화)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5년 하반기 원자력 안전마크 선정 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에서는 2005년 하반기 원자력 안전마크 심사결과 8건 신청중 2건(발전분야 : 무진기연, 방사선 및 기타분야 :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을 선정하고 2주간의 선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 및 관계자께서는 '05. 10. 26~11. 9(2주간)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신청가능하다.

□ 심사 개요

○ 전문심사(1, 2차) : '05. 9. 12~10. 8(4주)

- 발전, 방사선 및 기타분야 2개 분과(19명)로 나누어 각 분과별로 원자력안전 기여도, 기술적 능력, 기술 제품의 탁월성, 품질보증활동 등 심사

○ 종합심사 : 2005. 10. 10~10. 22(2주)

- 심사위원 8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심사에서 추천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최종 심사

□ 심사결과 : 8건 신청중 2건 선정

○ 발전분야(1건)

- 증기발생기 맨웨이 Stud Tensioner(무진

기연)

- 방사선 및 기타분야(1건)
 - 천층처분 안전성 해석 통합코드 시스템(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향후 추진계획

- 선정예고 : '05. 10. 26~11. 9 (2주)
- 시상식 : '05. 11. 30 이전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정기검사 후속조치로 일시 가동 중단

- 연구소 ‘하나로’ 안전성 제고차원에서 검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것 -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가 무기한 가동 중단 상태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하나로”가 안전문제로 가동이 무기한 중단되었다고 하나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로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규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받고 있으며, 검사종료 후 가동을 재개합니다.
- “하나로” 2005년 정기검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극미량이지만 지난 6월 13일 공개한 바대로 연구소 주변 환경시료분석에서 갑상선 진단·치료제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131(I-131) 검출이 있었음에 보다 더 철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소가 자청해서 검사기간을 1개월 정도 연장 요청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9일까지 검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정기검사 결과 60여건의 지적/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에서 발생한 60여건의 지적/권고사항은 대부분이 인허가 문서개정신고 누락, “안전성 분석보고서(SAR)” 작성 오류, 절차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알려졌으며, “하나로”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자력연구소는 규제기관의 지적/권고 사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하나로 운전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재가동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연구소가 “하나로”가동을 중단한 채 자청하여 검사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하나로의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안전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연구소 보도자료 -

“제9회 국제 가속기 및 빔 이용 워크숍” 개최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단장 : 한국원자력연구소 최병호 박사)은 10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이틀간 “제9회 국제 가속기 및 빔 이용 워크숍”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가속기 및 빔 이용 전반에 걸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국제 워크숍으로 확대·개편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초청과 대형 양성자가속기 개발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특히, 양성자사업단 조용섭 박사가 20MeV 선형양성자가속기 완성과 20MeV 빔 인출 초기시험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고주파4극가속기(RFQ : Radio Frequency Quadrupole) 및 선형가속기(DTL : Drift Tube Linear Accelerator)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제작기술 보유국 대열